# "특이하고 유쾌…언제 또 할지 모를 캐릭터"

## 설현·이광수 연인으로 호흡,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 tvN 27일 첫 방송

이광수와 설현이 동네 마트를 배경으로 사람 냄새가 폴폴 나는 코믹 수사극 tvN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 오래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다.

이광수와 설현은 지난 25일 열린 '살인자의 쇼핑목록'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말에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다"고 입을 모았다.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평범한 동네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과 계산원, 지구대 순경이 영수증을 단서로 추리해 나가는 이야기다. 원래 영화 제작이 검토됐다가 8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2018년 '라이브' 이후 4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이광수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특이하고 유쾌한 드라마"라며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캐릭터여서 (출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광수는 과거 암기 천재였지만 현재는 9급 공무원 삼수생인 MS마트 사장 아들 안대성 역을 맡았다.

이광수는 "마트 캐셔(계산원)는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는 캐릭터다 보니 더 친근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며 "(대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많은데, 오지랖이 넓은 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설현은 대성의 연인이자 오동지구대 열혈 순경 도아희 역을 맡았다.

설현은 "(마트 영수증으로 사건을 풀어간다는) 참신한 소재의 시나리오가 재밌게 느껴졌다"며 "사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져서 더 좋았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코미디 연기에 처음 도전하는 설현은 "일부러 웃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대본 속에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캐릭터를 따라 연기를 하다 보니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년을 만나온 연인을 연기했는데, 드라마 캐스팅 이전부터 예능 출연 등으로 쌓아온 친분이 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진희경은 대성의 엄마이자 MS마트 사장 정명수 역으로 극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정명수는 작은 동네 슈퍼를 번듯한 2층짜리 건물과 있을 건 다 있는 마트로 키워낸 '슈퍼보스'다. 진희경은 정명수와의 싱크로율을 묻는 말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했다.

진희경은 "추리극은 어두운 색깔이 많은데 우리 드라마는 유쾌하고, 경쾌하다"며 "추리극과 코미디가 섞인 복합장르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드라마의 매력을 자랑했다.

연출을 맡은 이언희 PD는 드라마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코미디 수사극의 매력을 잘 살리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했다.

이 PD는 "코미디 드라마가 웃기려면 (시청자가) 사람(캐릭터)들과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친해지면 살짝만 재밌어도 마구 웃기는데, 호감이 안 가면 안 웃기기 때문에 (시청자와 캐릭터들이) 친해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극 연출에 대해 "경찰이 해야 하는 범인 검거를 (동네 사람들이) 넓은 오지랖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했다"며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 사건들을 긴장감 있게 그렸다"고 전했다.

오는 27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설현(왼쪽)과 이광수

# 윤여정, 오스카 그 후

## tvN 새 예능 '뜻밖의 여정' 나영석 연출, 5월8일 방송

tvN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배우 윤여정의 이야기를 담은 새 예능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뜻밖의 여정'은 지난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를 수상한 윤여정이 지난달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나영석·신효정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이서진이 윤여정의 매니저로 나서 '윤식당'·'윤스테이'에 이어 다시 호흡을 맞춘다.

신 PD는 "윤여정의 모습을 꾸밈없이 담아낼 예정"이라면서 "프로페셔널한 배우 윤여정의 모습과 소탈한 일상 속에서 또 다른 '뜻밖의 여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8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 스타 예능PD 대이동

## '유퀴즈' 등 CJ ENM 간판 프로 PD 줄퇴사…독립된 '레이블' 선호

이른바 잘 나가는 예능 PD들의 이적 소식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콘텐츠 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놀라운 토요일', '여고추리반' 등 CJ ENM의 간판 예능을 만들어온 PD들이 줄줄이 퇴사 의사를 밝혔거나 이미 퇴사했다.

반면 JTBC는 CJ ENM 출신 PD들을 포함해 다른 방송국 PD들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사를 떠난 PD들 가운데는 김태호 PD처럼 직접 소규모 제작사인 레이블을 차리거나, 독립된 제작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 CJ ENM 인력이탈…대표 예능 '유퀴즈' 연출진도 이적 논의

콘텐츠 '공룡 기업'으로 불리며 수년간 잘 나가는 스타 PD들을 영입하며 신선한 예능 프로그램을 내놨던 CJ ENM이 최근 잇단 인력 유출을 겪고 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연으로 논란을 빚었던 tvN '유퀴즈'의 김민석 PD와 박근형 PD의 JTBC 이적 논의가 대표적 사례다.

2018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유퀴즈'는 시즌제 예능이 많은 tvN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간판 프로그램이다. 특히 김 PD는 tvN이 나영석 PD의 연출작 외에 다양한 예능을 내놓기 시작하던 시기에 '유퀴즈'를 성공적으로 론칭시킨 인물이다.

김태호 PD

올해 초 가희, 선예 등 왕년 아이돌의 복귀 무대로 화제를 모았던 tvN 음악 예능 '엄마는 아이돌'을 선보인 민철기 PD는 이미 JTBC로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출근할 예정이다. MBC에서 음악 예능 '복면가왕'을 성공시킨 뒤 2017년 tvN으로 이직한 지 5년 만이다. 여기에 '인생술집', '놀라운 토요일' 등을 연출한 이태경 PD, '더 지니어스', '대탈출', '여고추리반' 등 추리 예능 시리즈를 연출한 정종연 PD도 CJ ENM을 떠나 김태호 PD의 제작사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

◇ 스튜디오·OTT '스타 PD' 모시기…방송사들은 골머리

현재 CJ ENM이 직면한 인력 유출은 수년 전부터 방송사들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 CJ ENM이 지상파 PD들을 흡수했다면, 이제는 OTT, 제작사들이 '스타 PD' 모시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KBS에서 '불후의 명곡'을 연출하던 권재영 PD는 지난 2월 제작사 A9미디어로 이적했고, 지난해 SBS에서 퇴사한 '정글의 법칙'의 민선홍 PD는 디즈니+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tvN에서 정치 풍자로 주목받은 'SNL 코리아'를 만든 안상휘 CP는 제작사 에이스토리로 자리를 옮겨, 새로워진 'SNL 코리아'를 쿠팡플레이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사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PD들 사이에서는 TV 예능의 경우 제작비도 OTT 등과 비교해 여유롭지 않은 편이고, 편성된 일정에 맞춰 방송분을 완성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등에 대한 불만이 쌓인 상태다.

◇ 김태호 PD 등 홀로서기…"콘텐츠 IP 확보·글로벌 진출 기대"

최근 PD들은 콘텐츠 제작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대표적 사례가 올해 MBC를 퇴사한 김태호 PD다. 김 PD는 새로 제작사를 설립하고, 첫 연출작으로 이효리의 서울 나들이를 담은 '서울체크인'을 티빙에 선보였다.

김 PD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적 소감을 묻자 방송 다음 날 아침 시청률 통보를 받지 않아 후련하다는 소감과 함께 콘텐츠 제작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넉넉하고, 장르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져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실제 PD들은 방송사에 소속된 '월급쟁이'보다 창작자로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OTT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연합뉴스

# 하지원 '커튼콜' 주연

## KBS 드라마…강하늘과 호흡

KBS는 배우 하지원 〈사진〉이 새 드라마 '커튼콜'의 주연으로 합류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무는 서서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던 '커튼콜'은 북한에서 온 시한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귀순한 손자를 연기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하지원은 호텔 낙원의 총지배인 박세연 역으로, 무명 연극배우 유재헌을 연기하는 강하늘과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